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미 정

2013년 12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정 환

김 미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김미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12월

<국문초록>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미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4년제 대학 1개교, 2~3년제 대학 2개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461부가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35부을 제외한 42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분석은 Windows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양상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동기는 용돈마련이 가장 높았다. 아르바이트 시간에서 주당 20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학생이 절반 정도로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노출되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최초 시기에서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대학별로 4년제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가 가장 높았다. 반면, 2~3년제 대학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시기에서 여학생은 '평일'과 '평일·주말모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학생은 '주말'과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높았다. 직종은 단조로운 작업 위주의 서비스 직종에 몰려 있었고, 서비스 직종에 대한 분포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다. 학생들이 원하는 직종으로는 전공 관련 직종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는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라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서 10시간이하 집단이 21시간에서 25시간이하 집단보다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시기(평일, 주말, 평일· 주말모두, 방학 때만)에 따라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이 '평일·주말모두'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보다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라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과외 및 학원강사'의 학업적응 평균이 가장 높았고, '유흥주점 등'은 가장 낮았다.

셋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학업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15시간이하에서는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16시간이상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개인정서적응에서 11시간이상에서부터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르바이트 시기(평일, 주말, 평일· 주말모두, 방학 때만)는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르바이트 직종은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무업무보조'는 개인정서적응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카운터 및 서빙'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동 부담은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학생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정수준의 아르바이트 시간과 시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아르바이트 경험을 배움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전공 관련 직종을 개발하고, 전공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4

Ⅱ. 이론적 배경 ····· 6

1.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개념적 정의 및 실태 ····· 6
2. 대학생활적응의 개념적 정의 ····· 9
3.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0
4.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2

Ⅲ. 연구방법 ····· 17

1. 연구대상 ····· 17
2. 연구도구 ····· 17
3. 연구절차 ····· 20
4. 자료처리 ····· 21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22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2
2.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상 ····· 23
3.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 34
4.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40

Ⅴ. 결론 및 제언 ····· 48

참고문헌 ····· 54

ABSTRACT ·····58

부 록 ·····61

표 목 차

표 1. 국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사 연구 ·····7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17
표 3.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18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 5.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 ·····24
표 6.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 ·····25
표 7. 아르바이트 직종 ·····27
표 8. 아르바이트 시기(평일, 주말, 평일· 주말모두, 방학 때만) ·····29
표 9. 주당 아르바이트 참여시간 ·····30
표 10. 아르바이트 한달 수입 ·····31
표 11. 미래 직업 생활에 도움 여부 ·····32
표 12.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3
표 13.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35
표 14. 아르바이트시기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37
표 15.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38
표 16.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41
표 17. 아르바이트 시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43
표 18. 아르바이트 직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44
표 19. 노동 부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4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용어가 그리 생소하지 않을 만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2003)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의 35.4%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고용정보원이 2011년에 실시한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2007) 5차년도 추적조사에서는 10명 중 4명(39.4%)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있는 알바천국(2013.1)이 대학생 1,7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겨울 방학에 알바를 하는 중이거나 할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에 87.4%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한국NGO 신문. 2013.2.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증가와 더불어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왔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이 일을 한다는 것은 불우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딛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범사례로 여겨졌다. 반면, 1980년대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한 하나의 일탈과정으로 여겨졌다(이경묵, 1999).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소년이 일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부 근로 청소년이나 소수의 문제 학생들에게 국한되는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고(백지숙, 2006), 학생 전반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높아지게 된 것은 청소년의 필요와 사회변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임서정, 2003). 비교적 단순하였던 과거 청소년의 주 소비항목(예, 학용품, 방과 후 간식, 교통비)들이 이제는 핸드폰, 옷, 신발, 장신구, 친구들 간의 외식이나 교제비, 게임장비, 여행 등으로 확대(이철위, 2000; 이광호, 2001; 구효진·최진선, 2006)되면서 청소년의 소비에 대한 욕구는 점차 늘어났다. 또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서비스업의 빠른 증가는 미숙련 단시간 노동력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문은영, 200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인 경우 많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주어지고, IMF이후에 치솟는 물가와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장시간 아르바이트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백지숙(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67.3%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는 학비 마련과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일의 종류나 가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다. 단지 자신이 바라는 수단으로서 단기간, 저임금의 특정기술이 필요 없는 일(이광호, 2001)로서 미래의 하기를 희망하는 직업과 동떨어져있는 경우가 많다. 학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속하는 아르바이트는 경험 자체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일우, 2002).

Koeske & Koeske(1989)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영향은 아르바이트의 부담이 클 경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역할에서의 과도한 부담이 다른 역할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관점이다. 즉 노동 부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대학생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경우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켜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자기개발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 불리한 조건을 지니게 된다.

장원섭(2001)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연구(Ⅱ)”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약 51% 정도만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10명 중에 반을 약간 넘는 대학생만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직업도 없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응답자들 중에서 약 36%만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취업준비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가 직업세계로 진입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미미한 준비도 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이다. 시간의 배분을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공부는 장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 투자 효과는 노동시간 중에 회수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

다(이광호, 2001).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그러한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아르바이트를 이용함이 타당하고, 만일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온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경험으로 작용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학교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선택에 맡긴 채 그대로 방치할 수도, 무조건 억누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미래를 준비하고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이해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양상은 어떠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부족한 실태임을 감안하여 설정된 문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마련하고자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 시기, 아르바이트 직종, 아르바이트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시간, 시기, 직종)에 따라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시간, 시기, 직종, 노동 부담)은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 아르바이트 시기(평일, 주말, 평일·주말 모두, 방학 때만)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아르바이트 시기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아르바이트 직종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 노동부담은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양상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써, 본 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활적응 등의 주요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개념적 정의 및 실태

1) 대학생 아르바이트 개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아르바이트'는 노동,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본래의 직업 외에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대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학교 공부라는 학생의 본업 이외에 임시로 하는 일로,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특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시간제로 이루어지는 파트타임(part time)근로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전일제(full time)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업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 근로와 다른 개념으로서 '본업이외의 부업'과 '임시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개념이다(박창남·도종수, 2007). 각종 통계조사는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이머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장원섭, 2000; 류양희, 2005)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독일어로 일반적인 노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학술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이민경, 2000; 김덕순·이명숙, 2002; 조성태·남진열, 2012).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학업을 수행하면서 방과 후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소득을 얻기 위한 부가적인 활동을 아르바이트라고 명하기로 한다.

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실태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주 연구대상은 중· 고등학생이며,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표 1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기관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조사가 활발하다. 반면,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난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다(김덕순·이명숙, 2002).

표 1에 나타난 조사지역과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약 30~40%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은 약 60~70%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사 연구

조사기관	조사년도	조사지역	조사대상	아르바이트 경험비율
서울 YMCA	2000년	서울 및 10개 중소도시	14~21세 청소년 3,833명	30.4%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0년	전국 45개 중 · 고등학교	중 · 고등학생 3,679명	29.2%
노동부	2002년	전국 6개 도시 중 · 고등학교	중 · 고등학생 3,471명	41.3%
한국정책연구원	2005년	전국 12개 도시 중 · 고등학교	중 · 고등학생 2,905명	34.1%
학생생활연구소 (전일우)	2002년	강원도 1개 대학	대학생 508명	66.7%
백지숙	2006년	전라남도 1개 대학	대학생 678명	67.3%

노동부(2011)의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79.6%가 용돈을 벌기 위해,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 6.0%, 생활비를 벌기 위해 5.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주변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카운터 및 서빙 50.9%, 전단지 돌리기 24.8%, 배달

7.7%, 건설· 공장 노동 6.2%, 주유소 주유원 4.8%, 제한업종 1.4%순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시기는 주말 48.7%, 평일주말모두 36.3%, 평일 15.1% 순으로 나타났다.

김덕순·이명숙(2002)은 아르바이트를 언제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했으며, 고3, 중학교 순이었고 대부분의 대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기는 51.8%가 방학 중에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아르바이트가 생길 때마다 하는 학생이 31.8%를 차지하고 있다. 전일우(2002)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직종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설일용 고용직 분야 8.1%, 사무직 분야 6.9%, 교육과 학원분야 5.7%, 기타 9.8%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의 학생이 서비스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전공 관련 아르바이트를 가장 하고 싶어 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업종과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가족부(2010)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갖는 의의로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독립심이나 자립심, 책임감을 키우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장기적으로 장래의 직업목표나 직업가치, 특정 직업에 대한 자신의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아르바이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26.9%), 패스트푸드점 점원/배달(11.3%)등 단순 반복적 성격이 강한 업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진로교육 차원에서 직업 체험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과 두 번째로, 근로시간에 따른 문제점으로 학교생활과의 충돌 및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으로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 일일 8시간 근로를 한 학생(18.4%)이 2시간 근로를 한 학생(2.1%)보다 "그렇다" 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장시간 근로가 학업수행에 지장 초래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 친구관계 등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준다고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절반이 최저 임금 보장

이 안 되고 있고 임금체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 부당한 처우 경험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등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2. 대학생활적응의 개념적 정의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송미, 1999; 신지영, 2000; 양현정, 2003). 김경미(2009)는 적응을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주변 환경과의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처하고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은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생과 대학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신지영, 2000)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1984)에 의하면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응,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과 과외활동과 관련된 사회적응,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정서적 적응, 그 밖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이나 긍지 등 대학환경적응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응이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칠 때의 행동, 학업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회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와 대학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가 있는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서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와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해당된다. 셋째, 개인정서적응은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애정과 친밀감, 신뢰와 이해 같은 감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대학환경적응

이란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학업에 대한 몰입도의 내용을 포함한다(김윤경, 2010; 서정희, 2012).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적응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네 가지 측면에서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연관성을 다루고자 한다.

3.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동 - 학업 간 역할갈등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노동자와 기존의 학생이라는 두 가지 주된 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Greenhaus & Beutell(1985)은 성인을 대상으로 일-가족에서의 역할갈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체계들간 역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각 체계에서의 적응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갈등 모델은 일과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학업 등 다양한 영역간의 갈등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이론의 유용성이 설명되고 있다(Chartrand, 1990; Hammer, Grigsby & Woods, 1998).

Kahn et al(1964)은 역할갈등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역할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압력에 순응하게 되면 다른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상태' 라고 정의 하고 있다(Greenhaus & Beutell, 1985).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가족 갈등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종합하여 갈등의 원천을 시간, 긴장, 행동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세 가지 원천에 따라 일-가족 갈등의 유형을 시간근거 갈등(time-based conflict), 긴장근거 갈등(strain-based conflict), 행동근거 갈등(behavior-based conflict) 으로 나누었다.

첫째, 시간근거 갈등(time-based conflict)은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다른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발생하는 관점으로 선행 연구들이 기반하고 있는 제로섬(zero-sum)관점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과도한 노동시간은 물리적으로 학교에서의 역할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리적 몰입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긴장근거 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한 역할의 역할수행에서 얻은 긴장으로 다른 영역의 역할수행이 지장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갈등으로 한 역할, 즉 아르바이트 수행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이로 인한 피로와 긴장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동근거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한 역할에서 역할수행에 효과적이었던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적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으로 나누고 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 현장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행동양식들이 서로 양립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역할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

Koeske & Koeske(1989)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영향은 아르바이트의 부담이 클 경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역할에서의 과도한 부담이 다른 역할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관점이다.

Hardesty와 Hirsch(1992)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학업 간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학교생활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과제수행 시간과 학교활동에의 참여도가 감소한다고 보면서 아르바이트 역할이 학교나 다른 사회역할에서 형성된 관계 및 사회적 정체성과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방학 중 노동경험과 학기 중 노동 경험이 학교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한 이들의 연구에서 학기 중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르바이트-학업 간 갈등으로 인해 방학 중 아르바이트경험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동 부담

노동 부담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볼 때. 노동은 ‘육체와 정신을 써서 일을 하다’. 부담은 ‘어떤 일이나 의무, 책임 따위를 떠맡음. 신체부위에 대한 자극

이 지나치게 많이 주어져서 느껴지는 힘들고 괴로운 느낌’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노동 부담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써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 요구되는 책임과 더불어 느껴지는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때 노동특성의 자체에서 요구되는 즉, ‘노동요구’는 일의 양, 시간적 압력, 집중이 되는 정도, 갈등 및 어려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여 가중되는 노동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능력이상의 업무량이나 시간적 압력은 육체적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나아가 주요한 사고발생 원인이 되며(Savery& Wooden, 1994), 아울러 총체적인 적응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 부담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부적응을 야기함은 물론 앞서 설명한 시간근거 갈등(time-based conflict) 측면에서 노동-학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예성(2002)연구에서 시간제노동 학교청소년의 노동부담은 심리정서문제와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별된다. 첫째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주로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이며,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혹은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류와 일이 행해지는 맥락(context)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조건적 입장으로 나누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아르바이트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는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증가할수록 학교 참여와 학업성취수준이 낮아진다는 제로섬(zero-sum)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arr et al., 1996). 제로섬 관점은 시간이라는 물리적 측면과 동시에, 학문적 자기개념과 학문적 열망, 학교에의 몰입,

학업에의 투자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구성체로 개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과제수행에 사용하는 시간이나 학교몰입 정도를 떨어뜨림으로써 학문적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Oettinger(1999)는 아르바이트는 직접적 공부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금전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보다 여가를 즐기게 하며, 노동으로부터 오는 피로감도 학업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을 밝혔다.

전일우(2002) 연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조금 받는다' 26.8%, '보통 받는다' 16.3%, '자주 받는다' 9.5%, '심하게 받는다' 4.3%, '전혀 받지 않는다' 1.4%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43.1%가 조금 또는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주 받거나 심하게 받는 학생도 13.8%로 나타나서 학생들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스트레스가 학업에 장애를 주는 정도는 41.4%가 조금 또는 보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각한 지장을 준다. 6.5%로 57.9%가 학업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 자체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업에 장애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학교성적은 낮아졌으며(문성호, 2003; 김기헌, 2003; 유성렬, 2005) 아르바이트 경험 특성의 많은 요인들이 스트레스적 성격을 띠면서 학생들의 전반적 적응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김예성, 2002)

아르바이트 경험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로 Morgan & Peebles(1996)는 아르바이트는 학업성취에 필요한 인성의 발달이 가능하며 학업에 대한 동기의식이나 미래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학문에의 노력을 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동의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등 일과 학교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느낄 경우 두 가지 맥락간 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적응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Entwisle, et al., 1999) 보고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자신의 소비욕구를 부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구매욕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더 높으며,

이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히고 있다(구효진·최진선, 2006).

아르바이트 경험의 효과에 관한 세 번째 입장은 아르바이트 경험 자체보다는 아르바이트 작업의 내용 초점을 맞추고 있다. Mortimer와 Finch(1996)는 청소년들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그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을 둘러싼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교육적 맥락이란 어떤 일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기술, 지식, 습관,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것이고, 경제적 맥락이란 노동의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만을 위한 순간적인 소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 생활비나 자신의 학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란 일을 하면서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대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또래 문화를 강화시켜 세대 간 차이를 강화시키는가에 관한 것이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건적 입장에서의 대표적인 연구 중의 하나가 일의 강도(주당노동시간)의 측면이다. Quirk, Timothy와 Jeffrey(2001)는 주당 12시간미만의 노동 경험을 지니는 학교 청소년의 경우 노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성적이 높은 반면, 12시간 이상의 노동 경험은 성적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예성(2002)연구에서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노동시간에 의한 영향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지점은 주당 15시간 노동에서 주당 20시간 노동 사이의 지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느 한계이상의 노동 시간은 청소년들이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학교적응은 하락하고 행동문제는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에 할애하는 시간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지숙(2006)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활 중 아르바이트 할애 시간이 50% 이하의 시간을 할애한 학생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르바이

트 할애 시간이 51% 이상인 학생은 사회적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대학적응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의 한 주의 시간을 대략 40시간으로 생각하면 아르바이트에 할애한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학업적응, 정서적응, 대학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기(학기, 방학, 학기와 방학)에 따른 대학적응을 살펴본 결과, 대학소속감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기와 방학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대학소속감이 가장 낮았다. 이는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시간에 따라 사회적응을 제외한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소속감에 영향을 주고, 학기와 방학모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대학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대학에 대한 애착과 학업에 대한 몰입을 떨어뜨리게 된다.

박창남 · 도종수(2007)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직종과 노동 강도(노동시간)의 차원으로 나누어 아르바이트 효과를 검증하였다. 직종별로는 음식점 · 서빙 · 배달, 유해업소, 제조 · 건설이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노동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길다는 것과 직종별 업무의 성격이 단순 반복적이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의 낮은 사회적 위신으로 인하여 고용주나 고객으로부터 우호적이고 교육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종은 전단지, 판매, 기타서비스로 나타났다. 전단지는 업무가 일회적으로 노동시간이 짧고 스트레스가 덜하고, 판매는 고객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고 상품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직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기헌 · 유성렬(2006)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전단지 돌리기와는 달리 서빙이나 배달 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처한 작업환경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며, 성인과의 접촉 빈도도 급증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 등 성인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모방하게 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효과가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노동의 질적 성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성태 · 남진열(2012)은 주당 아르바이트 참여시간이 21~25시간일 때 스트레스 평균이 가장 높고, 주당 아르바이트이 시간 16~20시간, 26~30시간, 31시간 이상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경혜(2000)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과정과 의미가 다양해져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자신감·성취감 및 경제관념, 시간관리, 직장생활에서의 위계관계, 대인관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스스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아이들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의 폭이 컸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의 동기, 일터에서의 피드백의 성격, 부모의 지원과 관여 정도 등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4년제 1개 대학교, 2~3년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아르바이트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거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461명의 자료가 배포 수집되었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35명을 제외한 4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구분	일반적특성	조사대상자 전체(N = 426)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82	42.7
	여자	244	57.3
학교	4년제 대학	250	58.7
	2~3년제 대학	176	41.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설문 참가자들의 426명 중 남학생은 182명(42.7%), 여학생은 244명(57.3%), 4년제 대학은 250(58.7%), 2~3년제 대학은 176(41.3%)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종속변수 :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ky(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하고 권혜진(2007)이 사용한 것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지선근(1998), 신지영(2000), 옥경희(2000), 양혜선(2004), 서희채(2005),

권혜진(2007)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용하였으며, 총 67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적응(Acdemic adjustment): 대학 내 학업과 관련된 생활(시험, 수업 등)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사회적응(Social Adjustment):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취나 하숙, 기숙사 생활에 대한 문항 22번, 26번, 33번 문항은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3) 개인정서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불편감이나 문제점을 측정하는 것으로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대학환경적응(Attachmentadjustment): 대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로서 대학과 학생간의 유대감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 사이에 답하도록 하였다. 부적응적인 내용의 문항들은 역산한 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희채(2005)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93이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935 이다.

표 3.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영역	문항	Cronbach's α
학업적응	3,5,(6),(10),13,(17),19,(21),23, (25),27,(29),(32),36,(39),(41), 43,44,50,(52),54,(58),62,66	.858
사회적응	4,8,9,14,18,(22),26,30,33,37,(42), 46,(48),51,63,65	.850

개인정서적응	(2),(7),(11),(12),(20),24,(28), (31),(35),(38),(40),(45),(49),55, (56),(64),67	.835
대학환경적응	1,15,16,(34),47,53,(57),(59), (60),(61)	.812
	전체	.935

()는 역 문항임.

2) 독립변수

(1)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아르바이트 특성 중 '시간' 요인으로 한 주당 몇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사용하였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아르바이트 직종

아르바이트경험 직종은 고용노동부(201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참여했던 직종에 대해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아르바이트 시기

아르바이트 시기는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과 더불어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특성으로 '평일', '주말', '평일 · 주말 모두', '방학 때만'으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하였다.

(4) 노동 부담

노동 부담은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노동 특성 중 '시간'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Barnett과 Brennan(1995)의 노동 부담(job demands) 척도를 김예성(2002)이 사용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다', '항상 시간에 쫓겨 쉴 틈이 없다', '일을 할 때 바싹 긴장을 해

야 한다’, ‘일이 끝날 때면 녹초가 되는 느낌이다’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예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6 이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37 이다.

3. 연구절차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 검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구성, 이해정도와 타당성,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 12월 초에 50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설문지 내용 중 다중답안이 나올 수 있는 문항인 등록금 납부방식과 최근에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한 물음에서는 단답 문항에서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하였고, 대학생활적응척도 검사지에서 기숙사(혹은 하숙, 자취)를 묻는 항목은 체크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은 최종 8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는 2013년 9월 초에 2주일간 제주지역의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4년제 대학교는 다양한 전공생들이 모인 교양과목 강의실에서 실시하였고, 2~3년제 대학은 과별로 담당교수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하기 전에, 본 연구에 대한 내용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었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자기보고식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질문지 응답에 소요한 시간은 15~20분이었다. 연구내용에 의문사항이나 관심이 있는 참가자는 설문지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남겨 추후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결과 46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5부를 제외하고 4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상과 아르바이트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각 연구단계의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 P<.01, P<.001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인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증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특성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셋째, 아르바이트 주당근무시간, 아르바이트시기,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르바이트 주당근무시간, 아르바이트시기, 아르바이트 직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노동 부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상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교, 성적, 경제적 수준, 등록금 납부방식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82명(42.7%), 여학생이 244명(57.3%)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은 4년제 대학교 250명(58.7%), 2~3년제 대학교 176명(41.3%)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성적수준을 보면 3.0~4.0미만이 257명(60.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3.0미만 108명(25.4%), 4.0이상 41명(9.6%), 2.0미만 20명(4.7%)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인 경제계층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생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은 중간정도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41명(5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좋지 않은 편이다 124명(29.1%), 좋은 편이다 45명(10.6%), 매우 나쁜 편이다 13명(3.1%), 매우 좋은 편이다 3명(0.7%)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등록금 납부방식은 학생이 납부하는 방식을 중복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복수 응답은 695개이며 부모님지원이 287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장학금 206명(29.6%), 스스로충당(아르바이트 등) 102명(14.7%), 학자금대출 68명(9.8%), 기타 32명(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적특성	조사대상자 전체(N=426)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82	42.7
	여자	244	57.3
대학	4년제 대학	250	58.7
	2~3년제 대학	176	41.3
성적	2.0미만	20	4.7
	2.0~3.0미만	108	25.4
	3.0~4.0미만	257	60.3
	4.0이상	41	9.6
경제적 수준	매우 나쁜 편이다	13	3.1
	좋지 않은 편이다	124	29.1
	중간 정도이다	241	56.6
	좋은 편이다	45	10.6
	매우 좋은 편이다	3	.7
구분	일반적특성	조사대상자 전체(N=695)	
		빈도(명)	비율(%)
등록금남부 방식	부모님지원	287	41.3
	스스로충당(아르바이트 등)	102	14.7
	학교장학금	206	29.6
	학자금 대출	68	9.8
	기타	32	4.6

2.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상

1)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

표 5는 성별과 대학에 따라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에 대한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결과, ‘대학교에 입학하면서’가 57.3%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중’ 30%, 세 번째는 ‘기타’ 8.5%, ‘고등학교 이전’ 3.8%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덕순·이명숙(2002)의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가 대학교 1학년, 고3, 중학교 때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χ^2=2.069, P=.558), 대학에 따른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의 분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2=79.189, P=.000). 대학에 따른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하는 비율이 71.2%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시작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2~3년제 대학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시작하는 비율이 51.7%로 ‘대학교 입학 하면서’ 시작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비율도 2~3년제 대학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기

구 분	성 별		대 학		합계
	남	여	4년제	2년제	
고등학교 이전	6(3.3)	10(4.1)	4(1.6)	12(6.8)	16(3.8)
고등학교 재학 중	52(28.6)	78(32.0)	39(15.6)	91(51.7)	130(30.%)
대학교 입학 하면서	105(57.7)	139(57.0)	178(71.2)	66(37.5)	244(57.3)
기타	19(10.4)	17(7.0)	29(11.6)	7(4.0)	36(8.5)
합계	182(42.7)	244(57.3)	250(58.7)	176(41.3)	426(100)
χ^2(df)	2.069(3) p =.558		79.189(3) p =.000		

2)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

표 6은 성별과 대학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에 대한 조사 대상자 전체의 응답 결과, ‘용돈을 벌기 위해’가 6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 16.9%,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7.3%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 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노동부(2011)의 연구에서 용돈마련이 79.4%, 진로경험 축적이 5.4%, 여가시간 활용 5.1%로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용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진로경험 축척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경혜(2000)와 김예성(2002)이 청소년들 스스로 노동에 내재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아르바이트 동기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χ^2=.597, P=.963), 대학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의 분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7.245, P=.123).

표 6. 아르바이트 시작 동기

구분		성별		대학		합계
		남자	여자	4년제	2년제	
생존동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2 (6.6)	19 (7.8)	15 (6.0)	16 (9.1)	31 (7.3)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33 (18.1)	39 (16.0)	35 (14.0)	37 (21.0)	72 (16.9)
성장 동기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	13 (7.1)	16 (6.6)	16 (6.4)	13 (7.4)	29 (6.8)
물질동기	용돈을 벌기 위해	120 (65.9)	165 (67.6)	177 (70.8)	108 (61.4)	285 (66.9)
기타		4 (2.2)	5 (2.0)	7 (2.8)	2 (1.1)	9 (2.1)
합계		182 (42.7)	244 (57.3)	250 (58.7)	176 (41.3)	426 (100)
χ^2(df)		.597(4) p=.963		7.245(4) p=.123		

3) 아르바이트 직종

표 7은 성별과 대학에 따라 최근에 경험해 보았던 모든 아르바이트 직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이다.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한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결과, ‘카운터 및 서빙(24시간 편의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노래방, 음식점, PC 방 등)’이 51.7%로 가장 많았고, ‘기타’ 15%, ‘과외 및 학원 강사’ 8.6%, ‘사무업무보조(설문조사 등)’ 8.2%,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5.9%,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4.6%, ‘배달(패스트푸드, 음식 등)’ 3.4%,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2.7%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운터 및 서빙(24시간 편의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노래방, 음식점, PC 방 등)’이 51.7%로 노동부(2011) 연구결과 50.9%와 유사하다. 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단지 돌리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박창남 · 도종수(2007)는 중학교까지 전단지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차 직종이 다양해지고 있고, 김기헌 · 유성렬(2006)은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상당 수준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전단지 외의 서비스 직종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직종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단순한 서비스 직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직종 다양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2=39.846, P=.0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카운터 및 서빙(24시간 편의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노래방, 음식점, PC 방 등)’과 ‘사무업무보조(설문조사 등)’, ‘과외 및 학원 강사’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카운터 및 서빙(24시간 편의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노래방, 음식점, PC 방 등)’에서 남학생 41%, 여학생은 60%로 나타나 여학생이 약 20%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배달’,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기타’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타’ 업종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10% 더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답변으로 남학생은 건설 현장이나 계절적 직종인 선과장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2=25.973,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외 및 학원 강사'와 '사무업무보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카운터 서빙'에서 4년제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과 '배달',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에서는 2~3년제 대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 아르바이트 직종

구분	성별		대학		합계
	남	여	4년제	2년제	
사무업무보조(설문조사 등)	19 (7.6)	27 (8.7)	35 (10.1)	11 (5.1)	46 (8.2)
과외 및 학원 강사	19 (7.6)	29 (9.4)	41 (11.9)	7 (3.2)	48 (8.6)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19 (7.6)	14 (4.5)	13 (3.8)	20 (9.3)	33 (5.9)
배달(패스트푸드, 음식 등)	13 (5.2)	6 (1.9)	9 (2.6)	10 (4.6)	19 (3.4)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14 (5.6)	1 (0.3)	9 (2.6)	6 (2.8)	15 (2.7)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	14 (5.6)	12 (3.9)	17 (4.9)	9 (4.2)	26 (4.6)
카운터 및 서빙(24시간 편의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노래방, 음식점, PC 방 등)	103 (41.0)	187 (60.3)	168 (48.7)	122 (56.5)	290 (51.7)
기타	50 (19.9)	34 (11.0)	53 (15.4)	31 (14.4)	84 (15.0)
합계	251 (44.7)	310 (55.3)	345 (61.5)	216 (38.5)	561 (100)
χ^2(df)	39.846(7) p=.000		25.973(7) p=.001		

4) 희망 아르바이트 직종

학생들이 원하는 직종을 서술 식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응답 내용을 보면 관광레져스포츠학과 학생은 인명구조원, 간호과 학생은 병원 보조, 유아교육과는 아이를 돌보는 아르바이트 등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가장 원했고, 그 다음으로 구청이나 관공서의 사무업무, 학교근로 장학생, 학원 강사 및 과외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서비스 직종으로, 서점, 영화관, 빵집, 옷가게 판매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는 시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카페나 유흥주점, 이마트 진열사원, 선과장이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전일우(2002)연구에서 전공 관련 아르바이트를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점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5) 아르바이트 시기(평일, 주말, 평일· 주말 모두, 방학 때만)

표 8은 성별과 대학에 따라 아르바이트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아르바이트시기에 대한 전체의 응답결과, '주말'에 39.4%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평일·주말모두' 25.8%, '방학 때만' 21.8%, '평일' 12.9%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기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χ^2=28.282, P=.0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주말'이 43%로 가장 많았고, '평일· 주말모두' 29.1%, '평일' 15.2%, '방학 때만' 12.7%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주말'에 34.6%와 '방학 때만' 34.1%, '평일·주말모두' 21.4%, '평일' 9.9%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여학생은 '주말'과 '평일· 주말모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주말'과 '방학 때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대학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기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났다(χ^2=12.200, P=.00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년제는 '주말'에 36%, '방학 때만' 27.6%, '평일·주말모두' 23.6%, '평일' 12.8%순으로 나타났다. 2~3년제는 '주말' 44.3%, '평일·주말모두' 29%, '방학 때만' 13.6%, '평일' 13.1%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3년제 대학생들은 '주말'과 '평일·주말모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르바이트 시기(평일, 주말, 평일· 주말 모두, 방학 때만)

구분	성별		대학		합계
	남	여	4년제	2년제	명 (%)
평일	18(9.9)	37(15.2)	32(12.8)	23(13.1)	55(12.9)
주말	63(34.6)	105(43)	90(36)	78(44.3)	168(39.4)
평일 · 주말모두	39(21.4)	71(29.1)	59(23.6)	51(29)	110(25.8)
방학 때만	62(34.1)	31(12.7)	69(27.6)	24(13.6)	93(21.8)
합계	182(42.7)	244(57.3)	250(58.7)	176(41.3)	426(100)
χ^2(df)	28.282(3) p=.000		12.200(3) p=.007		

6) 주당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

표 9는 성별과 대학에 따라 주당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당 아르바이트시간은 아르바이트의 주요 특성으로서 노동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한 전체의 응답결과 '16시간에서 20시간' 이 26.1%로 가장 높았고, '31시간 이상' 20%, '21에서 25시간' 17.8%, '11시간에서 15시간' 16.9%, '26시간에서 30시간' 10.1%, '10시간 이하' 9.2%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수 선행연구에 의해 학교부적응이나 심리적 디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주당 '20시간 이상' 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47.9%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선행연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확인된 주당 '15시간에서 20시간' 사이인 '주당 16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74%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분포에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χ^2=20.396, P=.001), 대학에 따른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분포에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4.115, P=.533). 성별에 따른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15시간 이하' 는 남학생 26.4%, 여학생

25.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31시간이상’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16시간에서 20시간’의 빈도가 29.9%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주당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

구분	성별		대학		합계
	남	여	4년제	2년제	
10시간 이하	20(11.0)	19(7.8)	24(9.6)	15(8.5)	39(9.2)
11~15시간	28(15.4)	44(18.0)	48(19.2)	24(13.6)	72(16.9)
16~20시간	38(20.9)	73(29.9)	60(24.0)	51(29.0)	111(26.1)
21~25시간	27(14.8)	49(20.1)	46(18.4)	30(17.0)	76(17.8)
26~30시간	16(8.8)	27(11.1)	22(8.8)	21(11.9)	43(10.1)
31시간이상	53(29.1)	32(13.1)	50(20.0)	35(19.9)	85(20.0)
합계	182(42.7)	244(57.3)	250(58.7)	176(41.3)	426(100)
χ^2(df)	20.396(5) p=.001		4.115(5) p=.533		

7) 아르바이트 한달 수입

표 10은 성별과 대학에 따라 한 달 동안의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이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한 달 수입에 대한 전체의 응답결과, ‘21만원에서 40만원’의 분포가 38.5%로 가장 많았고, ‘41만원에서 60만원’ 22.3%, ‘61만원에서 80만원’ 13.8%, ‘100만 원 이상’ 11%, ‘80만원에서 100만원’ 9.6%, ‘20만 원 이하’ 4.7%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한 달 수입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χ^2=49.624, P=.000), 대학에 따른 아르바이트 한달 수입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5.591, P=.348). 성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한 달 수입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은 ‘21만원에서 40만원’이 절반가까이 되는 49.6%로 나타났고, ‘41만원에서 60만원’ 22.5%, ‘61만원에서 80만원’ 12%, ‘80만원에서 100만원’ 7.8%, ‘20만 원 이하’ 5.5%, ‘100만 원 이상’ 3.7%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21만원에서 40만원’ 23.6%, ‘41만원에서 60만원’ 22.%, ‘100만 원 이상’ 남학생은 20.9%, ‘61만원에서 80만

원’ 15.9%, ‘80에서 100만원’ 12.1%, ‘20만 원 이하’ 5.5%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 달 수입이 남학생은 ‘61만 원 이상’ 인 비율에서 48.4%로 나타났고, 여학생인 경우 ‘21만원에서 40만원’ 이 49.6%로 나타났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도 남학생은 20%, 여학생은 3.7%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인한 한 달 수입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분포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아르바이트 한달 수입

구분	성별		대학		합계
	남	여	4년제	2년제	
20만 원 이하	10(5.5)	10(5.5)	8(3.2)	2(6.8)	20(4.7)
21~ 40만원	43(23.6)	121(49.6)	94(57.3)	70(39.8)	164(38.5)
41~ 60만원	40(22.0)	55(22.5)	63(25.2)	32(18.2)	95(22.3)
61 ~ 80만원	29(15.9)	30(12)	33(13.2)	26(14.8)	59(13.8)
80 ~ 100만원	22(12.1)	19(7.8)	25(10.0)	16(9.1)	41(9.6)
100만 원 이상	38(20.9)	9(3.7)	27(10.8)	20(4.7)	47(11.0)
합계	182(42.7)	244(57.3)	250(58.7)	176(41.3)	426(100)
χ^2(df)	49.624(5) p=.000		5.591(5) p=.348		

8)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 여부

표 11은 성별과 대학에 따라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의 응답결과는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43.4%, ‘아주 큰 도움이다’ 12.2%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총55.6%로 나타나 이는 노동부(2011)연구결과 도움이 된다는 47.3%의 결과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보통이다’ 21.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4.6%,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8.7%로 나타났다. 이로써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 여부에 대한 생각은 ‘도움이 된다’ 55.6%,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3%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 여부의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χ^2=9.135, P=.058), 대학에 따른 미래 직업생활

의 도움 여부의 분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6.527, P=.163).

표 11. 미래 직업 생활에 도움 여부

구분	성별		대학		합계
	남	여	4년제	2년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5 (8.2)	22 (9.0)	20 (8.0)	17 (9.7)	37 (8.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7 (14.8)	35 (14.3)	40 (16.0)	22 (12.5)	62 (14.6)
보통이다	37 (20.3)	53 (21.7)	44 (17.6)	46 (26.1)	90 (21.1)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71 (39.0)	114 (46.7)	117 (46.8)	68 (38.6)	185 (43.4)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2 (17.6)	20 (8.2)	29 (11.6)	23 (13.1)	52 (12.2)
합계	182 (42.7)	244 (57.3)	250 (58.7)	176 (41.3)	426 (100)
χ^2(df)	9.135(4) p=.058		6.527(4) p=.163		

9)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표 12는 성별에 따라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물음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의 응답결과는 '건전한 아르바이트거리 제공' 25.8%, '아르바이트와 향후 진로 연계 강화' 19.7%, '부당노동행위 사법부 처벌' 19.5%,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14.6%, '일자리확대' 12%, '기타' 8.5%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 "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최저 임금미달인 직종들이 올라왔다"와 "편의점에서 한시간당 시급을 3,500원에서 3,800원으로 받고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인 4,86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최저임금지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 개발 및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준수 및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의 분포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χ^2=6.978, P=.222).

표 12. 정부가 가정 먼저 해야 할 일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일자리확대	25(13.7)	26(10.7)	51(12.0)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32(17.6)	30(12.3)	62(14.6)
건전한 아르바이트거리 제공	44(24.2)	66(27.0)	110(25.8)
부당노동행위 사법부 처벌	35(19.2)	48(19.7)	83(19.5)
아르바이트와 향후 진로 연계 강화	28(15.4)	56(23.0)	84(19.7)
기타	18(9.9)	18(9.9)	36(8.5)
합계	182(42.7)	244(57.3)	426(100)
χ^2(df)	6.978(5) p=.222		

10) 아르바이트 경험의 장점과 단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을 서술 식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장점으로는 용돈을 벌수 있다는 금전적인 충족이 가장 많았고, 끈기와 책임감, 사회적 경험, 대인관계 능력향상, 자신감 증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단점으로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체력으로 힘이 든다는 점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간이 부족하여 교우관계 및 학업에 영향을 준다, 여가시간과 개인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용돈마련 및 돈에 쫓기지 않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됨. 단점으로 자기 자신의 시간이 부족 "

"용돈이 생긴다. 단점은 피곤하다. 주말에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바 때문에 밤늦게 까지 과제를 하게 되어 힘이 든다."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뿌듯함. 단점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

"용돈을 범, 자신감 생김. 단점은 힘이 들고 지치고 공부랑 같이 할 수 없음. 학업보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더 중점을 두게 된다."

“ 돈을 번다. 힘이 든다.”
“ 생활비 마련. 단점은 자기 시간이 사라짐, 잠이 많아짐 수업 집중 안 됨.”
“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단점은 체력.”
“ 참을성과 인내의 한계점을 알 수 있다. 단점은 스트레스가 쌓인다.”
“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너무 힘들고 지치다. 개인 시간이 없다. 성적이 좋지 않다.”
“ 사회생활과 여러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힘이 들지만 보수가 크지 않다.”
“ 손님들을 대하면서 사교성이 늘어나는 것 같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단점은 학업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데 지장이 있다.”
“ 내게 맞는 직업을 알 수 있다. 단점으로 힘이 든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앞으로 선생님이 되는데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자기 공부시간과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 진로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라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음. 단점은 지침,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아 질 때가 가끔 있음, 과제 있는 날에는 지쳐서 과제하기가 힘들 때가 있음.”

3.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특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 시기, 직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사를 실시하였다.

1)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라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서 유의 확률이 .027, 개인정서적응에서 유의 확률이 .045의 수치를 보여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라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은 채택되었고, 사회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응과 개인정서 적응 모두에서 21시간에서 25시간을 기점으로 V자 모양을 보인다. 10시간 이하 주당노동 시간 초기 값 구간에서

는 평균이 가장 높고, 11시간에서 15시간에는 점수가 떨어지고 21시간에서 25시간에서 최저점을 찍고, 26시간에서 30시간 올라가다 31시간이상이 평균 3.01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Scheffe 검증을 통해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 모두에서 10시간 이하의 집단이 21시간에서 25시간이하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초기 값 구간에서는 학업적응 수준이 높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낮아지는 패턴은 제로섬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시간을 빼앗기는 만큼 학교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 정서적 몰입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 수준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김예성(2002)과 김기헌(2003)의 강도 높은 주당노동시간은 학업적응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표 13.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학업적응	10시간 이하(a)	3.21	.44	2.550 (.027)	a>d
	11~15시간(b)	3.06	.42		
	16~20시간(c)	2.99	.42		
	21~25시간(d)	2.91	.40		
	26~30시간(e)	2.99	.44		
	31시간 이상(f)	3.01	.58		
개인정서적응	10시간 이하(a)	3.25	.62	2.291 (.045)	a>d
	11~15시간(b)	3.02	.48		
	16~20시간(c)	2.99	.52		
	21~25시간(d)	2.90	.51		
	26~30시간(e)	2.96	.47		
	31시간 이상(f)	3.00	.63		
대학환경적응	10시간 이하(a)	3.42	.66	.605	-

	11~15시간(b)	3.38	.66	(.696)	
	16~20시간(c)	3.41	.62		
	21~25시간(d)	3.37	.55		
	26~30시간(e)	3.22	.70		
	31시간 이상(f)	3.36	.73		
사회적응	10시간 이하(a)	3.24	.53	.219 (.954)	-
	11~15시간(b)	3.22	.64		
	16~20시간(c)	3.20	.62		
	21~25시간(d)	3.18	.53		
	26~30시간(e)	3.13	.46		
	31시간 이상(f)	3.20	.59		

2) 아르바이트 시기(평일, 주말, 평일·주말모두, 방학 때만)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아르바이트시기에 따라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서 유의확률이 .001, 개인정서적응에서 .000, 대학환경적응에서 .018로 나타나 아르바이트시기에 따라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고, 사회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평일·주말모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Scheffe 사후 검정결과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서는 '주말', '평일·주말모두' 집단에서 '방학 때만'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환경적응에서는 '평일·주말 모두' 집단과 '방학 때만'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아르바이트시기에 따라 대학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지숙(2006)은 아르바이트시기에 따라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에 영향

을 주지 않았고 대학소속감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응을 제외한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경우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4. 아르바이트시기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학업적응	평일(a)	2.98	.38	5.243 (.001)	b,c<d
	주말(b)	2.99	.39		
	평일·주말모두(C)	2.92	.54		
	방학 때만(d)	3.17	.48		
개인정서적응	평일(a)	2.90	.50	6.074 (.000)	b,c<d
	주말(b)	2.99	.50		
	평일·주말모두(C)	2.91	.58		
	방학 때만(d)	3.20	.55		
대학환경적응	평일(a)	3.32	.53	3.410 (.018)	c<d
	주말(b)	3.36	.61		
	평일·주말모두(C)	3.26	.73		
	방학때만(d)	3.55	.65		
사회적응	평일(a)	3.15	.55	.353 (.787)	-
	주말(b)	3.22	.56		
	평일·주말모두(C)	3.17	.63		
	방학 때만(d)	3.22	.56		

3)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직종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는 학업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서 유의확률이 .026의 수치를 보여 직종에 따라 학업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은 채택되었고,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은 기

각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과외 및 학원 강사 직종에서 평균점수가 3.2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사무업무보조,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배달, 카운터 및 서빙(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이 2.88로 학업적응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직종에 따라 학업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창남·도종수(2007) 연구에서는 음식점서빙·배달, 유해업소 서빙 등이 업무자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기술이 거의 없으며, 단순작업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전단지, 판매, 기타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직종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의 종류와 맥락을 강조하는 조건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5.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학업적응	사무업무보조 (설문조사 포함)	3.17	.45	2.293 (.026)	-
	과외 및 학원강사	3.20	.62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3.13	.38		
	배달(패스트푸드, 음식 등)	3.02	.39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3.00	.84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	2.88	.53		
	카운터 및 서빙(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3.01	.48		
	기타	3.01	.46		
개인정서적응	사무업무보조 (설문조사 포함)	3.21	.55	1.238 (.280)	-

	과외 및 학원강사	3.02	.72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2.98	.67		
	배달(패스트푸드, 음식 등)	2.98	.43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2.91	.77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	2.89	.55		
	카운터 및 서빙(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2.97	.54		
	기타	2.98	.54		
대학환경적응	사무업무보조 (설문조사 포함)	3.55	.60	1.521 (.157)	-
	과외 및 학원강사	3.39	.78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3.32	.56		
	배달(패스트푸드, 음식 등	3.12	.64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3.29	.99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	3.10	.70		
	카운터 및 서빙(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3.37	.66		
	기타	3.36	.67		
사회적응	사무업무보조 (설문조사 포함)	3.45	.5	1.339 (.229)	-
	과외 및 학원강사	3.29	.70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3.26	.47		
	배달(패스트푸드, 음식 등	3.20	.61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3.28	.84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	3.15	.74		
	카운터 및 서빙(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3.18	.61		
	기타	3.22	.55		

4.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특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 시기, 직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의 검정결과는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서 '10시간 이하'를 기준 변수로 학업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11시간에서 15시간'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1.652(p=.099)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부(-)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16시간에서 20시간', '21시간에서 25시간', '26시간에서 30시간', '31시간 이상'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학업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27에서 2.55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 =.029로 2.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93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예성(2002)연구에서 외국의 선행연구는 노동시간에 의한 영향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지점은 주당 15시간 노동에서 주당 20시간 노동 사이의 지점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15시간과 20시간 사이인 16시간이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외국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에서 '10시간 이하'를 기준 변수로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11시간에서 15시간', '16시간에서 20시간', '21

시간에서 25시간’, ‘26시간에서 30시간’, ‘31시간 이상’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학업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27에서 2.29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 =.027로 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80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eske & Koeske(1989)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대인관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인정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일우(2002)와 조성태·남진열(2012)연구 결과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학업적응	상수	.073		43.985	.000	
	11~15시간	.091	-.122	-1.652	.099	.423
	16~20시간	.085	-.215	-2.649	.008	.352
	21~25시간	.090	-.253	-3.382	.001	.413
	26~30시간	.101	-.146	-2.203	.028	.529
	31시간 이상	.088	-.178	-2.326	.020	.393
	R=.172, R^2 =.029, 수정된 R^2 =.018 F=2.550, P=.027, Durbin-Watson = 1.932					
개인정서적응	상수	.086		37.611	.000	
	11~15시간	.107	-.163	-2.202	.028	.423
	16~20시간	.101	-.209	-2.569	.011	.352
	21~25시간	.106	-.248	-3.314	.001	.413
	26~30시간	.119	-.162	-2.453	.015	.529
	31시간 이상	.104	-.179	-2.326	.021	.393
	R=.163,R^2 =.027,수정된 R^2 =.015 F=2.291, P=.045, Durbin-Watson = 1.804					
사회적응	상수	.093		34.948	.000	
	11~15시간	.115	-.011	-.141	.888	.423
	16~20시간	.108	-.028	-.342	.732	.352
	21~25시간	.114	-.038	-.495	.621	.413
	26~30시간	.128	-.060	-.901	.368	.529
	31시간 이상	.112	-.031	-.403	.687	.393

	R=.051, R^2 =.003, 수정된 R^2 =-.009 F=.219 , P=.954, Durbin-Watson = 1.808					
대학환경적응	상수	.104		32.894	.000	
	11~15시간	.129	-.023	-.309	.757	.423
	16~20시간	.121	-.007	-.088	.930	.352
	21~25시간	.128	-.030	-.397	.692	.413
	26~30시간	.144	-.094	-1.406	.160	.529
	31시간 이상	.126	-.036	-.463	.644	.393
	R=.085, R^2 =.007, 수정된 R^2 = -.005 F=.605, P=.696, Durbin-Watson = 1.684					

2) 아르바이트 시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아르바이트시기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2의 검정결과는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기에서 '방학 때만'을 기준 변수로 학업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평일', '주말', '평일·주말모두',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학업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5.24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 =.036로 3.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90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학 때만'을 기준 변수로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평일', '주말', '평일·주말모두',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개인정서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6.07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 =.041로 4.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81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학 때만'을 기준 변수로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평일', '주말', '평일·주말모두',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대학환경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18에서 3.41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 =.024로 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68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ardesty와 Hirsch(1992)는 방학 중 노동경험과 학기 중 노동 경험이 학교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한 이들의 연구에서 학기 중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르바이트-학업 간 갈등으로 인해 방학 중 아르바이트경험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아르바이트 시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학업적응	상수	.047		67.371	.000	
	평일	.077	-.136	-2.412	.016	.722
	주말	.059	-.190	-3.045	.002	.588
	평일주말모두	.064	-.232	-3.808	.000	.618
	R=.190, R^2 =.036, 수정된 R^2 =.029 F = 5.243, P=.001, Durbin-Watson = 1.907					
개인정서적응	상수	.055		57.728	.000	
	평일	.091	-.185	-3.304	.028	.722
	주말	.069	-.187	-3.010	.011	.588
	평일주말모두	.075	-.235	-3.876	.001	.618
	R=.203, R^2 =.041, 수정된 R^2 =.035 F= 6.074, P=.000, Durbin-Watson = 1.817					
사회적응	상수	.060		53.804	.000	
	평일	.098	-.044	-.764	.445	.722
	주말	.075	-.005	-.072	.943	.588
	평일주말모두	.081	-.041	-.665	.507	.618
	R=.050, R^2 = .003, 수정된 R^2 = -.005 F= .353 P= .787 Durbin-Watson = 1.811					
대학환경적응	상수	.067		53.216	.000	
	평일	.109	-.115	-2.027	.043	.722
	주말	.083	-.142	-2.264	.024	.588
	평일주말모두	.090	-.190	-3.101	.002	.618
	R= .154, R^2 = .024, 수정된 R^2 = .017 F= 3.410, P=.018, Durbin-Watson = 1.688					

3) 아르바이트 직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3의 검정결과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서적응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 과외 및 학원 강사’를 기준 변수로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을 때, ‘사무업무 보조’는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카운터 및 서빙’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개인정서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40에서 2.21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 식에 대한 R^2 =.034로 3.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1.81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업무보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는 환경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만족감과 고객의 요구가 적어 그만큼 감정노동을 적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카운터 및 서빙(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은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에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직종으로 개인정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일우(2002)는 아르바이트 종류와 스트레스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53.3%의 학생들이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전공 관련 아르바이트는 스트레스를 적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기헌·유성렬(2006)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전단지 돌리기와는 달리 서빙이나 배달 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흡연과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아르바이트 직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학업적응	상수	.074		43.286	.000	
	사무업무보조	.091	.148	3.015	.003	.962
	학교(공공기관 등)	.110	.019	.368	.713	.886

	배달	.141	.002	.033	.974	.907
	주유소등	.156	.028	.565	.572	.932
	유흥주점등	.118	-.027	-.549	.583	.960
	카운터 및 서빙	.074	-.026	-.437	.663	.651
	기타	.082	.012	.203	.839	.719
	R= .172, R^2 = .030, 수정된 R^2 = .013 F= 1.826, P=.081, Durbin-Watson = 1.876					
개인정서 적응	상수	.069		45.327	.000	
	사무업무보조	.086	.115	2.344	.020	.962
	학교(공공기관 등)	.104	-.055	-1.078	.282	.886
	배달	.133	-.013	-.267	.790	.907
	주유소등	.147	-.021	-.414	.679	.932
	유흥주점등	.111	-.054	-1.110	.268	.960
	카운터 및 서빙	.069	-.136	-2.290	.023	.651
	기타	.077	-.087	-1.531	.126	.719
	R=.185, R^2 =.034, 수정된 R^2 =.018 F= 2.123, P=.040, Durbin-Watson = 1.818					
사회적응	상수	.074		43.286	.000	
	사무업무보조	.091	.148	3.015	.003	.962
	학교(공공기관 등)	.110	.019	.368	.713	.886
	배달	.141	.002	.033	.974	.907
	주유소등	.156	.028	.565	.572	.932
	유흥주점등	.118	-.027	-.549	.583	.960
	카운터 및 서빙	.074	-.026	-.437	.663	.651
	기타	.082	.012	.203	.839	.719
	R=.162, R^2 =.026, 수정된 R^2 =.010 F= 1.604, P= .132, Durbin-Watson = .816					
대학환경 적응	상수	.083		40.818	.000	
	사무업무보조	.103	.097	1.979	.048	.962
	학교(공공기관 등)	.124	-.025	-.494	.622	.886
	배달	.159	-.067	-1.321	.187	.907
	주유소등	.176	.005	.107	.915	.932
	유흥주점등	.133	-.100	-2.031	.043	.960
	카운터 및 서빙	.083	.001	.014	.989	.651
	기타	.093	.009	.157	.875	.719
	R=.162, R^2 =.026, 수정된 R^2 =.010 F= 1.619 P=.128, Durbin-Watson = 1.707					

4) 노동 부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 부담 정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4의 검정결과는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결과 t값은 -5.230(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 부담이 높으면 학업적응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7.34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61로 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서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결과 t값은 -8.740(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 부담이 높으면 개인정서적응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76.37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153로 15.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결과 t값은 -3.625(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 부담이 높으면 사회적응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3.14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30로 3.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대학환경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결과 t값은 -4.009(p=.000)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부담이 높으면 대학환경적응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6.06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037로 3.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다한 노동업무의 양이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과잉부담(overload)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에 대한 동기와 학업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등 총체적인 적응 수준을 떨어뜨려 대학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선행연구 논문 김예성(2002)에서는 노동 부담이 적응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도한 노동 부담은 심리적 육체적 적응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체성의 이론의 관점에서도 역할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노동부담은 노동영역과 학교영역에서의 적응 수준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표 19. 노동 부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노동부담	상수	.077		43.903	.000	R=.246 R^2 =.061 수정된 R^2 =.058 F=27.349, P=.000
	학업적응	.025	-.246	-5.230	.000	
	상수	.087			.000	R=.391 R^2 =.153 수정된 R^2 =.151 F=76.379, P=.000
	개인정서 적응	.028	-.391	-8.740	.000	
	상수	.099		35.926	.000	R=.173 R^2 =.030 수정된 R^2 =.028 F=13.140, P=.000
	사회적응	.032	-.173	-3.625	.000	
	상수	.110		34.374	.000	R=.191 R^2 =.037 수정된 R^2 =.034 F=16.069, P=.000
	대학환경 적응	.036	-.191	-4.009	.000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경험의 양상은 어떠하며, 그러한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주로 단조로운 작업위주의 서비스업종에 몰려있다. 대학생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업종은 파트타임이 가능하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직종이 한정적인 점은 대학생들이 서비스업종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직종은 서비스업종이지만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서비스업종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 이유로 남학생은 신체적 조건에서 유리한 건설 현장이나 선과장등 계절적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많고, 서비스 직종보다는 동일한 시간에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인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한달 수입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분포대에 있었다. 여학생은 한 달 수입이 21만원과 40만원사이에 절반 이상의 비율이 분포된 반면, 남학생은 한 달 수입이 61만 원 이상에 절반이상의 비율이 분포되었다. 1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셋째, 희망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공 관련 아르바이트 직종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어서 비전문적인 업무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자신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업무와 분위기를 익힐 수 있

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야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넷째,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은 학교부적응이나 심리적 디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영향이 확인된 주당 20시간 이상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평균 주당 수업시간이 21시간이고 아르바이트에 20시간 이상을 할애한다고 가정하면,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소요되는 시간은 총 41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주당 40시간이 근로시간인 성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인들보다 많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시기와 시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은 '주말'과 '방학 때만'을 이용해 짧은 기간 동안 '3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학생은 '학기 중' 꾸준히 '16시간에서 20시간'대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으로 가정 할 수 있다. 남학생들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나 계절적 직종에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여학생들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직종이 없고, 상대적으로 노동수요가 많은 서비스 관련 업종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적어서 학기 중에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섯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물음에는 대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들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최저임금이하의 근로조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친다. 기관에 문의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주당아르바이트시간, 아르바이트시기, 직종)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첫째,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에서 21~25시간을 기점으로 V자 모양으로 나타났다. 주당 21시간에서 25시간대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점수가 나타나 이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경험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당 11~15시간에서와 주당 31시간이상 시간대에서는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당 31시간이상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은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만약,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31시간이상을 할애해야 한다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업시간에 참여하기도 벅찬 시간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기 중에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적은 시간대와 같이 대학생활적응에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V자 모양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아르바이트시기(평일, 주말, 평일·주말모두, 방학 때만)에 따라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경우에는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평일 · 주말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학업적응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아르바이트 시기가 대학생활적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직종에 따라 학업적응에 관계가 있었다. 아르바이트 직종과 학업적응과의 관계는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시간과 관련이 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의 낮은 평균은 과외 및 학원 강사 직종보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과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음 날 수업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으로 이어져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수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주당아르바이트시간, 아르바이트시기, 직종, 노동 부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첫째, 아르바이트 시간에 의한 영향이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

하는 지점이 주당 16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의 양상에서 나타난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16시간 이상 할애하는 비율이 74%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대학생이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어느 한계 이하의 적정수준에서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학업과 미래에 직업을 갖기 위한 도움과 자극을 받게 됨으로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지만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는 체력적인 저하, 심리적인 부담과 자기개발에 대한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자체 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가가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함으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아르바이트 시기는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반면, ‘평일 · 주말모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아르바이트에서의 얻은 긴장을 해소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노동-학업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방학 때만’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학기 중에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아르바이트 직종은 개인정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직종에 따라 감정적인 에너지의 소모가 다름을 예측할 수 있다. 사무업무보조에 비해 카운터 및 서빙(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은 고객과의 응대과정에서 감정노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직종으로 개인정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동일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에도 아르바이트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참을성과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감정노동

이 요구되는 상황은 다양한 맥락으로 얽혀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배움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노동부담은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아르바이트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노동 부담을 줄이고 교육적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종의 개발과 더불어, 부당 노동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교육과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시간과 시기, 직종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식에 대한 제고와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전공 관련 아르바이트 직종 개발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 보았듯이 대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단순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에 대한 동기와 자극을 부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미래의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제주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전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아르바이트 경험의 전후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

생활적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생활적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열중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과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에서 제시된 것처럼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구효진 · 최진선(2006).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들의 경제 의식 및 근로의식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4호**, 39-71.

권혜진(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미(2009). **대학생의 성인애착,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헌(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7집 6호**, 115-144.

김기헌 · 유성렬(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Vol.-No.1**, 1-97.

김덕순 · 이명숙(2002).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학생생활연구 7권**, 오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예성(2002). **학교청소년의 시간제노동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예성(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노동-학업간 갈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2호**, 213-244.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김종성 · 이병훈(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권 제3호**, 33-59.

노동부(2009),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조사**, 노동부.

류양희(200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성호(2003). 학교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3)**, 83-103.

문은영(2003). **한국노동시장에서 청소년 시간제 취업의 문제점과 대책**.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창남 · 도종수(2007). 청소년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 5호,** 345-374.

백지숙(2006).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논문집 제4권 제1호.**

서정희(201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의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희채(2005). **부모애착, 사회적지지,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 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현정(200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및 수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Vol. 16. No.1,** 255-282

이경상 · 유성렬(20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의 변화와 특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제3권 2호,** 25-39.

이혜진(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YMCA.

임서정(2003).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수용에 대한연구-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원섭(2001).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Ⅱ)-고등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일우(2002). 본교재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8집, 71-92,** 삼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조성태 · 남진열(2012). 제주지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의 관련성 연구. **탐라문화 4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11권 제2호, 153-180.

한국NGO신문(2013.2.5). **대학생 알바.. '열 명중 아홉 명'**.

한국고용정보원(2011).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YP2007)5차년도 추적조사**, 한국고용정보원.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Burke, P. J., & Reitzes, D. C. (1991). An identity theory approach to commi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3),* 239-251.

Carr, R. V., Wrigt, J. D., & Brody, C. J. (1996). Effect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69,* 66-81.

Chartrand, J. M. (1990). A causal analysis to predict the person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nontradi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65-73

Entwise, D.R., Alexander, K. L., Olson, L. S., & Ross, K(1999). Paid work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pattern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63-388.

Frone, M. R., Yardley, J. K., & Markel, K. S., (1997). Developing and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45-167.

Greenberger. E. and Steinberg. L.(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ew York: Basic books.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91,* 76-88.

Hammer, L. B., Grigsby, T. D., & Woods, S (19980. The conflcting demand of work, family, and school among students at an urban university.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2),* 220-226.

Hardesty, P. H., & Hirsh, B. J.(1992). Summer and school-term youth employment: ecological and longitudinal analysies. *Psychology Report, 71,* 595-606.

Koeske, R. D., & Koeske, G, F.(1989). Working and non-working students: roles, support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5(3),* 244-256.

Kohn, M. L., Schooler, C., Miller, J., K. A., Schoenbach, c., &

Schoenberg, R. (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riry into the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Jersey: Norwood.

Mortimer. J. T., Finch M., Shanahan. M. and Ryu. S.(1992).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1),* 25-57.

Oettinger, G. S.(1999). Does high school employment affect high school academic performan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1),* 136-151.

Quirk, K. J., Timothy, Z. K.,& Jeffrey, T. Q. (200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and student achievement : Longitudinal analysis of national da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 1-9.

Savery, L. K., & Wooden, M. (1994). The relative influence of life events and hassles on work-related injuries: some Australian evidence. *Human Relations, 47(3),* 283-305.

<Abstract>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Kim, Mi-Jeo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support so that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by understanding various properties of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and examining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the following questions as a research problem:

First, what about the appearance on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i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Third, how does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affect adaption to university life?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a university and 2 two- or three-year colleges located in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result, a total of 46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426 questionnaires with the exception of 35 questionnaires due to insincere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as a measurement tool. The data processing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Windows SPSS 18.0,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to 0.05.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ross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king extra money was the strongest motivation to start part-time work in the appearance of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worked part-time over 20 hours a week and were exposed to prolonged high-intensity work.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time of the first experience of part time work, and the largest respondents in universities by category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started part-time work 'in university enrollment'. On the other hand, the largest respondents in two- or three-year colleges experienced part-time work 'in high school'. In the period of part-time work, female students experienced part-time work 'weekdays', 'both weekdays and weekends' at a high rate. Male students mostly experienced part-time work 'weekends' and 'only during vacations'. In the types of part-time work, the respondents were focused in service businesses based on simple task, and the female students were more highly distributed in service businesses than the male students. Occupations related to their major accounted the largest proportion as an occupation the respondents desired.

Second, with regard to the differences i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nd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part-time working hours per week. In the part-time working hours, the group with less than 10 hours per week showed higher academic and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than the group with 21 to 25 hours. According to the period of part-time work (weekdays, weekends, both weekdays and weekends, only during vaca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ademic, personal emotional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work

'only during vacations' showed higher academic, personal emotional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than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work 'both weekdays and weekends'. According to the type of part-time work,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daptation. 'Private tutor and cram school teacher' showed the highest average of the academic adaptation, and 'places of entertainment' was the lowest.

Third, i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on adaption to university life, the part-time working hours per week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cademic adaptation. Part-time work with less than 15 hours per week had no effect on the academic adaptation, and more than 16 hours had a negative effect on it. Part-time work with more than 11 hours per week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The period of part-time work (weekdays, weekends, both weekdays and weekends, only during vacation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cademic, personal emotional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The type of part-t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Administrative assista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sonal emotional adaptation, but 'counter and hall serving' had a positive effect on it. 'Labor burde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academic, personal emotional, social and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various properties of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had an effect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part-time working hours and periods at the appropriate level for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 part-time work and to teach and counsel at the university level in order to lead their part-time work experience to learning.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nd systematically support major-related work so that major-related part-time work experience can lead to future careers.

부 록

부록 1. 대학생활적응 척도 ·····62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문항을 읽으신 후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므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데로 폐기처리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연 구 자 : 김미정(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석사과정)
지도교수 : 박정환(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 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대학 내의 환경과 내가 잘 맞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근래에 나는 긴장되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학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왜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최근에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잘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시험기간 중에는 잘 지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홀로 선다는 것,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학업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학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교에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최근 내 감정을 잘 조절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사실 해야 할 공부를 해 낼 만큼 머리가 좋지는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 기숙사 생활(혹은 하숙, 자취)을 하지 않는 경우 22번, 26번, 33번은 체크하지 않아도 됨.

문항 번호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2	집이 그리워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사학위를 따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최근에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기숙사 생활(혹은 하숙, 자취)을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수강과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최근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과외의(정규과목 이외의)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최근에 학교상담소와 그 외 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같은 방 친구(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 또는 하숙 생활을 하는 경우)와 잘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다른 대학에 갔더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35	최근에 나는 체중이 많이 늘었다 (혹은 많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고 다양하다는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최근에 나는 너무 쉽게 화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고 할 때 주의 집중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번호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5	가끔, 내 생각은 너무 쉽게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대학 내에서의 친목 활동(동문회, 동아리 등)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학사학위를 받을 때 까지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최근에 이성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1	나는 최근에 대학생활 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과제물을 시작하는데 힘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대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최근에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6	나는 다른 학생들과 스스로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데, 난 그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57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58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에서의 내 학과공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9	최근에 나는 대학을 옮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	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그만둘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1	나는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마칠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3	나는 무슨 문제이든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몇 있다.	①	②	③	④	⑤
64	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어려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5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의 꽤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6	나는 대학에서 학업상태와 학업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7	나는 대학생활에서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 지금 다니고 있는 본인의 대학은?
( )대학 ( )학과

3. 현재 몇 학년이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누적) 평균 성적은?
① 2.0미만 ② 2.0 ∽ 3.0미만 ③ 3.0 ∽ 4.0미만 ④ 4.0이상

5.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① 매우 나쁜 편이다 ② 좋지 않은 편이다 ③ 중간 정도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6. 등록금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모두** 체크에 해주세요.
① 부모님 지원
② 스스로 충당(아르바이트 등)
③ 학교 장학금
④ 학자금 대출
⑤ 기타 ( )

Ⅱ. 다음은 가장 최근 한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7. 귀하는 아르바이트를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① 고등학교 이전 ② 고등학교 재학 중 ③ 대학교 입학 하면서 ④ 기타 ( )

8. 귀하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②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
③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④ 용돈을 벌기 위해서
⑤ 기타( )

9.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해당 부분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② 과외 및 학원강사
③ 학교 및 공공기관 알선을 통한 직장체험 ④배달(패스트푸드, 음식 등)
⑤ 주유소 주유원, 주차관리 ⑥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카페 등
⑦ 카운터 및 서빙(24시간 편의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노래방, 음식점, pc방 등)
⑧ 기타 (구체적으로:)

10.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예시: 전공과 관련된 업무, 구청이나 관공서의 사무업무, 패스트푸드점 점원 등)

→ 가장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종류를 구체적으로 ( )

11. 아르바이트는 **언제** 합니까?
① 평일 ② 주말 ③ 평일, 주말 모두 ④ 방학 때만

12.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① 평일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② 주말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③ 방학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13. **주당(일주일)** 아르바이트 참여시간은?
① 10시간 이하 ② 11~15시간 ③ 16~ 20시간 ④ 21~25시간 ⑤ 26~30시간 ⑥ 31시간 이상

14. 아르바이트 **한달**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만원 이하 ② 21~40만원 ③ 41~60만원 ④ 61~80만원
⑤ 80~100만원 ⑥ 100만원 이상

15. 아르바이트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나요? 적절한 칸에 체크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항상 시간에 쫓겨 쉴 틈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을 할 때 바싹 긴장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이 끝날 때면 녹초가 되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현재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 여부는?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

17.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장점 :
단점 :
– 단점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 )

18.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일자리 확대 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③ 건전한 아르바이트거리 제공
④ 부당노동행위 사법부 처벌 ⑤ 아르바이트와 향후 진로 연계 강화
⑦ 기타 ( )

※ 성의 있는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알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에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 연락처 :